

‘데이터와 통찰력으로 경기 뚫는다’... 전주대 축구분석팀

2017 U-리그 전주대 준우승 원동력... 러시아 월드컵서 한국 대표팀, 강팀에 기죽지 않아야

대한민국 대표팀이 2018 FIFA 월드컵 F조 1차전에서 스웨덴에게 0-1로 패했다. 4-3-3 포메이션으로 역습을 노렸지만, 결국 수비조직이 내려와 경기를 주도하지 못했다.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분석팀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심리적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어떤 전략을 쓰더라도 동료들을 믿고 ‘강팀에 기죽지 않아야 하는 멘탈’이 핵심이라고 꼽았다.

전주대 축구학과 분석팀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주요 경기와 팀별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각 대표팀의 경기력을 평가하고 이후 전략을 제시한다.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다. 유명 스포츠 일간지에 꾸준히 게재될 만큼 분석 수준은 프로급이다.

전주대 축구학과 분석팀은 경기지도학과 박경훈 교수(전 성남FC 감독)의 지도로 10여 명의 학생이 활동하는 전국 최초의 축구분석 동아리이다. 2016년에 공식 창설하여 올해로 3년째 활동하고 있다. 모임의 형태는 동아리지만 실력은 전문가 못지않다. 2017 U-리그와 춘계연맹전, 2018 러시아 월드컵 친선경기도 그들의 손을 거쳤다.

각 팀의 전략뿐만 아니라 개인의 움직임, 사소한 습관까지도 분석한다. ‘모 선수는 전방압박에 취약하다.’, ‘모 선수는 당황하면 오른발로만 패스한다.’라는 식이다.

2017년 U리그에서는 매 경기를 직접 촬영하고 전력을 분석했다. 전주대 축구부 정진혁 감독은 이들의 디테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략을 실제 경기에 적용했다. 이런 탓인지 2017년 전주대는 U-리그에서 준우승을 거머쥐는 동시에 7명의 선수가 프로팀에 진출하는 황금 전성기를 누렸다.

이들의 전문성은 과파처럼 오롯이 축구에만 몰입한 결과물이다. 매일 저녁 빠짐없이 경기분석과 토론, 스터디를 진행하고 경기가 있을 때면 밤을 새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시험 기간에도 도서관에서 전공책을 보는 대신에 함께 모여 축구경기를 분석할 정도다. 박경훈 교수의 밀착지도도 큰 역할을 했다. 박 교수는 주 2회 이상 분석 스터디에 직접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조언을 아



전주대 축구학과 분석팀은 경기지도학과 박경훈 교수의 지도로 10여 명의 학생이 활동하는 전국 최초의 축구분석 동아리가 2018 러시아 월드컵 주요 경기와 팀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까지 않았다. 10명의 전·현직 프로팀 전력분석관이 전주대 축구학과 분석팀을 거쳐 갔다. 대한축구협회 인재 훈련 전력분석관, 상주 상무 이승민 전력분석관, 제주 유나이티드 우원재 전력분석관이 이곳 출신이다.

현재는 전체 22개 프로구단 중에서 6개 구단에서 이곳 출신이 전력분석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K리그의 경기 분석의 4분의 1이 전주대 출신의 손을 거치는 셈이다. 이미 프로축구 현장에서 ‘전주대 출신’은 자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도 생겼다.

김동현 팀장(경기지도학과 4학년)은 “선배들이 끈끈하다. 졸업생도 단목방에 포함시켜 늘 소통한다.”라고 말하며 선배배 네트워크를 과시했다. 또한, “우리 팀에는 분석관뿐만 아니라 지도자

와 축구기자를 꿈꾸는 이들이 모여 있다. 각자의 꿈은 다르지만 전주대 축구부의 이름을 알리고 한국 축구의 힘이 되는 인재들이 되겠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현재 전주대 축구학과 분석팀에서 12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K리그에서는 팀당 1명의 전력분석관만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비교하면 많은 숫자다.

하지만, 그들은 축구 강호 유럽과 브라질에서 20여 명의 대규모 전력분석관을 운영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그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 믿고 있다. 축구학과 분석팀은 대한민국 축구의 수준을 한 층 더 도약시킬 것이라는 포부를 품으며 현재는 탄탄한 기반기를 다지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대 엄기욱 교수, 한국노인복지학회 차기 회장 선출

군산대학교 엄기욱 교수(사회복지학과)가 한국노인복지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이다. 한국노인복지학회는 회원 16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노인복지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용색인에서 사회복지 관련 29개 학회 중 영향력 지수 2위로 평가받는 등 노인복지전문학회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엄 교수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각종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학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협의회 희망풍차 성료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협의회(회장 이영주)가 세계 적십자의 날을 기념해 19일 오전 송리예술회관에서 독거노인 어버이 결연세대와 함께하는 희망풍차를 열었다.



적십자 희망풍차는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십자가 제공하는 보호체계로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한부모 등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500여 명의 독거노인과 봉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 제공과 기념식, 공연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부 기념식에서는 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 낭독, 봉사원 서약, 기념사와 대한적십자사 익산지구협의회에서 적십자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정현을 익산시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영원면 직원들, 매실 수확 돕기 '구슬땀'

영원면 직원들이 영원면 풍월리 전병수씨 농가에서 매실 수확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직원들은 작업복과 작업 도구를 직접 챙겨 매실 밭(1600㎡)에서 매실 수확을 돕고 농가의 어려움도 듣는 등 소중의 시간을 가졌다.

농장주인 전씨는 “모내기철과 겹쳐 매실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면 직원들이 도와줘 작기 수확을 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면 관계자는 “농번기철을 맞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농가 일손을 도와 작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5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보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중앙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010-98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89-0389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9157
호지사 010-965-9355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익산시 영등1동, 경로당 단체보험 가입 및 안전점검

익산시 영등1동행정복지센터(동장 한명란)가 14개소 경로당의 화재와 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2년 연속 단체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영등1동은 지난 5월 경로당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보험료가 값싸고 혜택이 우수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서 일괄 가입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행정 처리를 대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시켰고 가입증서는 경로당에 방문하여 부착해 주었다.

이로써 경로당 이용 어르신 9백여 명이 보험가입 1년 동안 안전사고 시 사고당 5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건물 화재 시에는 5천만원을 지원 받는다. 반면 아파트 경로당은 자체 가입을 실시했다.

한편 영등1동은 6월 초에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한 19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호원대,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 감성교수법 특강

호원대(총장 강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는 19일, 교수들의 수업역량강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감성교수법'을 주제로 교수법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KOCW 인 기강사로 선정된 바 있는 대구한의대 김성삼 교수를 초청해 “단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진심이 담긴 스토리텔링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강의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김재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